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819호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뉴스]
'2+2년' 만기에
대출 규제까지
내년 전세대란 예고
02

코스피 2997.21 (-2.31)
코스닥 1035.46 (+6.43)
금리(국고채 3년) 1.963 (+0.051)
환율(원·달러) 1179.90 (+1.50) 〈16일〉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9%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6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린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뉴시스

변동금리 이어 기준금리까지 금리 인상기, '영끌족' 어쩌나

10월 코픽스 1.29%… 0.13% ⬆
한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상승한데다 이달 기준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출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1.16%)보다 높은 1.29%다. 지난해 2월(1.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달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빠르게 반영된다.

10월말 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1.11%, 신 잔액기준 코픽스(10월말 잔액기준)는 0.89%를 기록해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16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은행별로 금리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연 3.53~4.83%, 국민은행은 연 3.58~4.78%, 신한은행은 3.52%~4.54%, 우리은행 연 3.44~3.95%, 농협은행은 연 3.63~3.93%로 변동됐다.

신잔액 기준 주담대 금리의 경우 하나은행은 3.31~4.61%, 신한은행은 연 3.52~4.54%, 농협은행은 연 3.23~3.53%로 변동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잔액 기준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달 열게 될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민들은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한은이 공개한 제20차 금통위 의사록(10월12일 개최)을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10월 0.75%로 동결했지만 이달 금통위에선 0.25%포인트 올릴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0%로 올라 코로나19 이후 20개월 만에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게 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내년 4~5%로 올해(5~6%)보다 강화한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올해처럼 은행들이 대출 관리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높이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에 이어 내년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주담대나 신용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5~6%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산업 경계 허문 '기업 합종연횡' K-UAM 新 모빌리티 빨라진다

〈도심항공교통〉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시장은 현대차를 중심으로한 연합과 SK텔레콤 연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롯데는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상용화를 앞둔 UAM 시장 공략을 위해 현대차와 KT, 인천공항공사, 현대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항공이 가세하기로 했다. 현대차 등 5개사는1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UAM의 성공적 실현, 생태계 구축,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5개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발휘해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UAM 개발부터 제조, 판매, 운영, 정비,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내고 UAM 시험 비행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UAM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며, 공항서틀과 UAM의 교통 관리 연구 등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의 구조와 제반시설 설계·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버티포트와 육상교통을 잇는 모빌리티 허브 콘셉트를 연구한다. KT는 UAM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개발, 모빌리티 사업 모델 연구, 교통 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등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UAM 운항·통제 시스템 개발, 여객·물류 운송 서비스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부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난 6월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항공, 현대차 UAM 연합 가세
실현·생태계·산업 활성화 협력

SKT, 공항공사·한화 등과 손잡고
K-UAM 종합 실증 안정적 성공

롯데도 美스카이웍스 등과 도전장
2024년 인천공항~잠실 운항 목표

UAM은 지상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신개념 중장거리 이동수단이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UAM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2040년 UAM 시장 규모가 국내 13조원을 포함해 73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를 발족했다.

UAM 팀코리아는 2025년 UAM 상용화에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총수2세 지분 많은 기업, 내부거래도 많다

대기업집단 2182곳 내부거래 현황
총수 있는 상위 10곳 비중·금액 감소

최근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수일가나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은 그대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첫 자금·자산의 내부거래를 분석했더니 전체의 4분의 1은 계열사 내 비금융회사가 금융계열사로부터 차입해 금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을 분석·발표했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182곳의 지난해 1년치 내부거래 현황이다. 〈관련기사 4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조7000억원, 12.2%)보다 감소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SK는 11조4000억원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했다.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처음 분석한 결과,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으로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형태의 차입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롯데, 네이버, 미래에셋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靑 "청와대와 대선후보 간 관계 여러 추측… 언급 부적절"
▲ 이재명, 지원금 반대 홍남기 때리기로 文과 차별화 잰걸음 /사진 뉴시스

▲ 국힘 '김종인' 역할론 공방… "킹메이커" vs "AI 시대에 무슨"
▲ 청와대, 지원금 당정대립 우려… "홍남기 설득보단 여야논의 먼저"

▲ 정치권, 포털개혁 입법 드라이브 "뉴스갑질 원천차단"
▲ 김동연 "학생부 전형 폐지…'2회 수능' 고득점 반영" /사진 뉴시스